

고려의 궁궐 운영과 조선 초의 궁궐제도 정비

Palace Operation of Goryeo and the Reform of the Palace System
in Early Joseon

김 지 현*
Kim, Jihyun
(건축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al situation that can be seen from the palace operation in early Joseon Dynasty. The first decades of Joseon after the nation was founded differ from the Joseon Dynasty as a whole, but rather similar with the Goryeo Dynast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Goryeo(高麗史)," it showed that palace operat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was marked by the fact that a separate palace was built and resided in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Bongweol(本闕, main palace) as the central palace. The separation of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ren's generation was show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one's own palace. Such trait of Goryeo affected palace construction directly after the founding of Joseon. This can be shown from the characteristic of palace operation by gener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Changdeokgung Palace(昌德宮) of King Taejong, as his own palace, is an example. Afterwards, the palace system of Joseon was established, and the space of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as merged through ritual reform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However, the space for the parents of the king were considered separate, and this influence continued to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 construction of Changgyeonggung Palace(昌慶宮)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s an event where the king proclaimed the separation with his mother and grandmother.

주제어 : 궁궐, 고려, 조선, 대비, 창덕궁, 창경궁, 별전

Keywords : Palace, Goryeo, Joseon, Former Queen, Changdeokgung, Changgyeonggung, Byeolje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조선시대 개국이 과연 고려와의 연속성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도래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태종까지의 궁궐 운영 등에서 볼 수 있는 점은 그것이 고려 궁궐 운영과 깊은 연속선 상에 있다는 점이 보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 세종 이전까지는 그 후의 사회와는 달리 상왕이 존재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권력을 공유하거나 어느 정도 힘의 분리가 있었다. 이런 시대상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사회상과는 달리 조선 초의 과도기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상왕의 존재는 왕의 공간과의 분리를 가져왔으며 이는 대비의 공간에도 영향을 끼친다. 상왕이 존재할 때는 상왕의 공간에서 같이 기거했지만 상왕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는 자신의 공간이 따로 있었다. 이것이 대비 궁궐의 존재라 할 수 있는 창경궁의 창건이다. 조선 후기의 관점에서는 대비의 공간을 만드려면 대비의 전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점에서 조선 전기 사회를 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궁궐을 따로 짓는 행위는 조선 후기의 효(孝)의 개념과는 달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비의 공간인 창경궁의 창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조선 전기 대비의 위상이나 상왕의 존재 등과 연결하여 살펴볼 점이 있다고 하겠다. 조선 초의 궁궐 운영에서는 조선 후기와는 다른 공간 운영이 보

* Corresponding Author : korea-kjh@daum.net

인다. 상왕과 대비는 왕의 궁궐 내 머무를 때 별전에 있기도 했는데 이런 점 등은 당시의 사회상이나 궁궐 운영에서 어떤 특색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조선 초의 이런 점은 오히려 고려의 궁궐 운영과 비슷하며 그의 연속선상에 있는 듯 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고려의 궁궐 운영과 조선 초의 궁궐 운영을 각각 살펴보고 그 연속성에서 볼 수 있는 유사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의 궁궐 운영이 어떠 했는지 사료를 통해 간략히 고찰한다. 그리고 조선 왕조 개창 후 점차 조선의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을 연이 어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전기 궁궐 운영은 조선 후기의 그것과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시기에 대한 궁궐 운영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왕의 가족이 모두 한 궁궐에 함께 기거했으나 조선 초에는 다른 양상이 있던 점을 참작하고, 이런 점을 고려와의 연관성에서 찾아보려 한다. 궁궐 운영 주체와 각 궁궐이 가지는 의미 등을 살펴보고 고려와 조선 전기의 당대의 시선으로 왕과 왕의 가족, 궁궐 등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전기를 다룬다. 고려시대에는 궁궐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국왕별 궁궐 공사와 기존의 전각을 궁궐로 삼는 일 등을 중심으로 그 연표를 만들고자 한다. 조선 전기는 태종울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사회상 변화와 세종 이후의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사회상과 궁궐 운영을 살펴본다.

공간적 범위는 궁궐이다. 이 때 궁궐이라 함은 왕이 임어한 궁궐 뿐만 아니라 당대의 상왕 궁궐, 대비 궁궐과 세자 궁궐 등을 포함한다. 고려의 궁궐 제도는 왕의 궁궐을 따로 영건하는 방식이 계속 이어졌는데 각각 어떤 궁궐이 있었는지 고찰한다. 조선 전기에는 세대별로 해당 궁궐이 각기 따로 존재하다가 하나의 궁궐 내로 합치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그 공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조선 초기 사회에서 보이는 고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사(高麗史)』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고려사』의 기록이 조선시대와는 달리 특정 사건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고려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사건을 기록한 당대의

사료 분석은 필요한 일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언급된 해당 부분의 분석을 우위에 두고 고찰한다. 또한 그간 연구되어 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료 분석의 바탕을 마련한다.

2. 고려시대 궁궐 운영

고려의 궁궐 운영을 『고려사』에서 찾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고려사』에 나오는 역대 왕의 궁궐 공사와 임어 관련 내용을 간추렸다. 왕이 궁궐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궁궐로 새로 삼았을 경우를 조사하여 나열하였다. 궁궐 공사에 대한 기록 없이 궁궐 명칭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해당 궁궐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이기에 연표에 삽입한다. 범궁인 본궐(本闕)¹⁾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궁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고려 왕조의 궁궐 관련 역대 연표

왕계보	서기년	궁궐 공사 및 왕의 임어 내용
태조2	919	도읍 정하고 궁궐(본궐) 및 관아 설치
정종4	949	서경에 궁궐 건축하다 왕의 승하로 중단
현종6	1015	장락궁(長樂宮)에서 잔치를 베풀
현종9	1018	연경원주(延慶院主)가 아들을 낳자 원호(院號)를 고쳐 연경궁(延慶宮)으로 삼음
현종11	1020	궁궐 중수로 거처를 수창궁(壽昌宮)으로 옮김
문종22	1068	남경에 새 궁궐 창건
문종35	1081	서경 궁궐 보수 및 신축을 명함
숙종9	1104	남경 궁궐 완성
예종11	1116	새 궁궐 완성하고 관리에게 포상했는데 전례는 서경의 구계궁(九梯宮)과 개경의 장원정(長源亭)에 준해서 함
인종5	1127	연경궁(延慶宮)을 인덕궁(仁德宮)으로 변경
인종6	1128	임원역 자리에 새 궁궐 건축
인종7	1129	서경에 새 궁궐 완성
인종7	1129	대화세(大花勢) 형국을 갖춘 곳에 궁궐 창건
인종12	1134	대화궐(大華闕)로 거처를 옮기려 함
인종17	1139	이자겸의 난으로 불탄 궁궐 중수
인종18	1140	왕이 새 궁궐로 돌아옴
인종20	1142	왕이 새 궁궐로 돌아옴
의종7	1153	왕이 새 궁궐로 돌아옴
의종11	1157	궁궐 신축을 기념해 사면을 베풀

1) 본궐은 태조가 창건한 고려의 범궁(정궁)을 말한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대궐'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이 곳을 만월대라 불렀다.

의종12	1158	배주에 별궁 짓고 중흥궐(重興闕)이라 함
명종5	1175	내사동(內史洞) 궁궐에 화재
명종10	1180	궁궐 건축 시작
명종26	1198	수창궁(壽昌宮)에서 연경궁(延慶宮)으로 옮김
고종4	1217	술사의 말에 따라 백악에 새 궁궐 건축
고종19	1232	강화에 궁궐 건축
고종37	1250	승천부 임해원 옛 터에 대궐을 신축
고종39	1252	묘통사 행차했다가 금단동(今杜洞) 궁궐로 옮김
고종41	1254	몽고 사신이 온다는 말에 승천부 새 궁궐로 옮김
고종46	1259	마리산(摩利山) 남쪽에 이궁 건축
고종46	1259	삼랑성, 신니동에 임시 궁궐 건축
원종1	1260	쉬리다이[束里大]와 함께 개경에 들어가 궁궐 신축 살핌
충렬왕3	1277	궁궐을 회사하여 민천사(旻天寺)라 함
충렬왕5	1279	죽판동의 민가 300여호를 철거하고 새 궁궐 건축
충렬왕6	1280	새 궁궐 이름을 응경궁(膺慶宮)이라 함
충렬왕17	1291	장봉의 신궁에서 잔치를 베풀
충선왕0	1298	불은사에 덕자궁(德慈宮)을 둠
충렬왕30	1304	이현(梨峴)의 새 궁궐 완공
충선왕1	1309	배정의 설계로 연경궁(延慶宮)을 중수
충선왕1	1309	이현의 새 궁궐 헐어냄
충선왕1	1309	수녕궁(壽寧宮)을 민천사(旻天寺)로 바꾸고 모후의 명복을 비는 절로 삼음
충혜왕(후)4	1343	삼현(三峴)에 새 궁궐 건축
공민왕9	1360	백악에 궁궐 건축하여 거처를 옮김
공민왕11	1362	개경에 분사(分司)하도록 함. 당시 개경 궁궐은 파괴되어 흔적도 없었음
공민왕19	1370	수창궁(壽昌宮) 옛 터에 궁궐 짓게 함
우왕5	1379	이현(梨峴)의 신궁으로 거처를 옮김. 이곳은 본래 유방계(柳芳係)의 집이었음
우왕10	1384	밤에 숙비궁(淑妃宮)에서 잔치
우왕11	1385	혼인하려는 강인유의 딸을 빼앗아 정비궁(定妃宮)에 둠
우왕12	1386	우시중 이성립이 백관을 인솔하여 헌비궁(憲妃宮)에 하례를 올림

위의 내용을 보면 신궁 관련한 기록이 많다. 본궐 외의 이궁과 별궁도 상당히 많은데 이름이 나와 있는 것과 이름을 짓지 않고 지명을 붙여 사용한 궁궐도 상당 수 있다. 국왕이 재위기간 동안 여러 개의 궁궐을 지은 경우도 있다.

역대 고려 왕이 임어하거나 건축한 궁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초기를 보면 태조가 개경에 본궐을

창건하고,²⁾ 정종은 서경으로 천도하기 위해 궁궐을 만들기도 했다.³⁾ 『고려사』에는 궁궐을 창건한다는 기록 없이 바로 궁궐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도 꽤 있는데 현종이 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현종 연간에는 장락궁(長樂宮), 연경궁(延慶宮), 수창궁(壽昌宮) 등이 있다.⁴⁾ 이어 각 국왕마다 새 궁궐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이어진다. 문종의 남경 신궁과 서경 신궁⁵⁾, 숙종의 남경 신궁⁶⁾, 예종의 새 궁궐 등이 있다. 예종조에는 구계궁(九梯宮)과 장원정(長源亭)의 존재⁷⁾ 등도 기록되어 있다.

인종 연간에는 궁궐 관련 기록이 많은데 기존의 궁궐을 확인할 수 있고 재위기간 동안 많은 수의 궁궐을 공사한 점 또한 볼 수 있다. 인종은 인덕궁(仁德宮; 구, 연경궁), 임원역 신궁과 서경 신궁, 대화궐(大華闕), 그 외 신궁들을 차례로 영건한다.⁸⁾ 의종 역시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신궁을 지었고 그 외 중흥궐(重興闕)을 또 다시 영건했다.⁹⁾ 명종 재위기간에도 내사동 궁궐과 연경궁(延慶宮) 등이 확인된다.¹⁰⁾

고종은 여러 지역에 궁궐을 지었는데 대몽항쟁기와 관련이 깊다. 백악 신궁, 강화 신궁, 승천부 신궁, 금단동 궁궐, 마리산 이궁, 삼랑성, 신니동 임시궁궐 건축 등이 있다.¹¹⁾ 원종은 개경 궁궐을 신축한다.¹²⁾

2)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 태조 2년(919) 1월 미상

3)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 정종 4년(949) 3월 13일 병진

4)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4, 현종 6년(1015) 3월 14일 갑오;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4, 현종 11년(1020) 8월 21일 경자; 『고려사(高麗史)』 열전 권제1 현종 후비 원성태후 김씨

5)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8, 문종 22년(1068) 미상;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9, 문종 35년(1081) 8월 7일 신유

6)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2, 숙종 9년(1104) 5월 22일 갑오

7)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4, 예종 11년(1116) 4월 28일 신묘

8)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5, 인종 5년(1127) 8월 24일 신사;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5, 인종 6년(1128) 11월 28일 무신;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6, 인종 7년(1129) 2월 20일 기사;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6, 인종 7년(1129) 3월 12일 경인;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6, 인종 9년(1131) 6월 15일 경진;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6, 인종 12년(1134) 3월 4일 갑인;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7, 인종 17년(1139) 2월 7일 무오;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7, 인종 18년(1140) 4월 10일 갑인;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7, 인종 20년(1142) 10월 16일 을해

9)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8, 의종 7년(1153) 7월 9일 병신;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8, 의종 12년(1158) 9월 4일 경신

10)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19, 명종 5년(1175) 2월 29일 신사;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0, 명종 10년(1180) 2월 10일 임진;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0, 명종 26년(1196) 8월 25일 임신

11)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2, 고종 4년(1217) 12월 7일 경술;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3, 고종 19년(1232) 6월 17일 병인;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3, 고종 37년(1250) 1월 27일 계사; 『고려

이후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충’자로 시작하는 왕의 재위기간이 시작된다. 충렬왕은 죽판동에 민가 300여채를 철거하고 새 궁궐을 짓는다고 하고 이듬해 새 궁궐 이름을 응경궁(膺慶宮)이라 하는데 이 응경궁이 죽판동 궁궐로 보인다.¹³⁾ 그 외에도 장봉 신궁,¹⁴⁾ 이현 신궁¹⁵⁾이 확인된다. 충선왕¹⁶⁾ 연간에는 덕자궁(德慈宮)과 기존의 수녕궁(壽寧宮) 등의 기록이 있다.¹⁷⁾ 그리고 충혜왕의 삼현 신궁,¹⁸⁾ 공민왕의 백악 신궁, 수창궁 옛 터의 신궁 등이 이어진다. 공민왕은 수원에도 신궁을 만들려 했으나 반대로 인해 짓지 못한다.¹⁹⁾ 우왕 연간에는 궁궐 창건 이외에도 많은 수의 후궁 궁궐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현 신궁, 숙비궁, 정비궁, 헌비궁 등이 있다.²⁰⁾

이처럼 고려시대 궁궐 운영²¹⁾을 살펴보면 역대 왕들

사(高麗史)』 세가 권제24, 고종 39년(1252) 4월 18일 신미;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4, 고종 41년(1254) 7월 17일 정사;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4, 고종 46년(1259) 2월 20일 갑오;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4, 고종 46년(1259) 4월 24일 정유

12)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5, 원종 원년(1260) 3월 17일 갑신

13)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8, 충렬왕 3년(1277) 7월 23일 경술;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9, 충렬왕 5년(1279) 3월 3일 경술;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29, 충렬왕 6년(1280) 6월 11일 신사

14) 기록에 보면 “왕과 공주가 장봉 신궁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공주는 원나라 황제의 딸인 계국대장공주이다. 충렬왕의 부인임에도 왕비라 칭하지 않는 이유는 고려의 왕이 원의 황제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왕비도 고려 왕비라 칭하지 않고 원의 공주라 칭했다(『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0, 충렬왕 17년(1291) 5월 7일 계묘).

15)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2, 충렬왕 30년(1304) 3월 8일 경신

16) 충렬왕과 충선왕은 부자기간에 서로 왕위를 한번 주고 받은 적 있기 때문에 충선왕은 1298년과 1308년에 두 번 즉위한다. 또 충선왕의 아들 충숙왕 연간의 기록에 의하면 ‘부왕이 30년동안 대궐 수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보아 충선왕 연간의 궁궐 공사 기록은 모두 이궁임을 알 수 있다(『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4, 충숙왕 원년(1314) 1월 10일 을미).

17)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3, 충선왕 즉위년(1298) 1월 26일 계축;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3, 충선왕 원년(1309) 3월 10일 계사;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3, 충선왕 원년(1309) 3월 15일 무술;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3, 충선왕 원년(1309) 9월 25일 갑진.

18)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6, 충혜왕(후) 4년(1343) 3월 13일 기묘

19)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39, 공민왕 9년(1360) 7월 17일 신미;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40, 공민왕 11년(1362) 3월 11일 정사;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40, 공민왕 11년(1362) 6월 23일 병신; 『고려사(高麗史)』 세가 권제42, 공민왕 19년(1370) 8월 17일 계유

20) 『고려사(高麗史)』 열전 권제47, 우왕 5년(1379) 10월 미상; 『고려사(高麗史)』 열전 권제48, 우왕 10년(1384) 11월 미상; 『고려사(高麗史)』 열전 권제48, 우왕 11년(1385) 1월 미상; 『고려사(高麗史)』 열전 권제49, 우왕 12년(1386) 8월 미상

21) 연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사찰을 궁궐로 바꾸거나 반대로 사찰에 궁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

이 여러 궁궐을 다수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궁궐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고려의 궁궐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궁궐은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건들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본궐의 사용이 여의치 않아서 다수의 이궁을 둔 면도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서 보이는 여러 궁궐의 존재와 다수의 선행 연구²²⁾에서 볼 수 있는 본궐과 이궁의 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고려의 궁궐 운영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고려는 본궐과 구분 짓는 또 다른 궁궐을 운영한 점이다. 이는 공간의 분리, 자신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언급된다. 조선 개국 후 태조 이성계가 무악을 둘러보고 천도할 장소에 대한 의문이 벌어졌는데 이 때 신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고려 태조가 송산(松山) 명당(明堂)에 터를 잡아 궁궐을 지었는데, 중엽 이후에 오랫동안 명당을 폐지하고 임금들이 여러 번 이궁(離宮)으로 옮겼습니다...”²³⁾ 이 말의 뜻으로 보아 고려 왕조는 본궐과 구분하는 다수의 이궁이 존재했고 그것이 고려의 궁궐 운영 방식임을 보여준다. 그것이 여러 임금에 걸쳐 자신의 궁궐을 따로 운영한 점이다.

한 고려시대 궁궐 운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왕이 개경의 궁궐에 머무르면서 남경의 궁궐에 왕의 옷을 걸어두기도 하는 등 머무르지 않는 궁궐에 왕이 임어하는 듯한 상징을 표출하려는 시도도 하는데 이는 풍수설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궁궐 운영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차후 여러 시각에서 연구해볼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22) 김동욱은 고려 무신정권 이후 궁궐 운영에서 이궁과 별궁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이궁은 본궐과 공간이 구분된 또 하나의 왕의 거처로 중요시 되었고, 이런 궁궐은 내전 영역이 강화되었음을 밝혔다(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북궁의 공간 구성: 고려 궁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 제7권 제2호, 1998). 김창현은 고려의 궁궐 운영을 여궐 시대, 별궁 시대 등으로 나뉘어 각 시대별 궁궐 운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김창현, 「고려 개경의 궁궐」,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57호, 1999). 장지연은 고려 궁궐의 이궁 운영에 대해 밝히며 본궐의 위상과 이궁의 역할 간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장지연, 「고려 후기 개경 궁궐 건설 및 운용방식」,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60호, 2006). 정은정은 고려 후기의 궁궐 운영을 당시의 정치 상황과 연계하여 궁궐 이용과 궁중 행사 등의 양상을 살폈다(정은정, 「원(元) 수도권정비의 영향과 고려궁궐의 변화」,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76, 2010).

23) 『태조실록(太祖實錄)』 6권, 태조 3년(1394) 8월 11일 무인 / 고려 왕조의 궁궐 운영을 예로 든 이 말의 뜻은 고려 왕조에서도 이궁을 따로 지어서 생활했으니 이번에도 기존의 궁궐과 도시는 그대로 두고 이궁 하나 새로 지어서 생활하라는 의미이다. 즉 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던 신료의 언급이다. 조선 개국 직후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지만 여전히 기존의 습성이 연속선 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은 조선 초 태종연간까지 이어진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는 이러한 공통된 기록은 고려시대 궁궐 운영이 조선의 그것과는 달랐으며 이에 개경의 본궐을 보는 관점 또한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려사』의 기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궐에 관한 모든 점이 다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궁의 존재를 볼 때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 조선과는 다른 방식이 있었다.

고려 본궐에 대한 해석은 신중을 기한다. 여러 면에서 볼 때 고려 본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²⁴⁾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의 궁궐 운영처럼 궁궐 내에 업무의 영역과 생활의 공간이 한 곳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것을 분리했을 수도 있다. 혹은 국가를 상징하는 궁궐과 왕이 임어하는 궁궐의 분리로도 볼 수 있다. 다수의 이궁의 존재는 여러 임금에 걸쳐 형성된 각자의 공간 사용 방식에 기인한다. 본궐과 이궁의 관계, 역대 국왕별 이궁의 존재, 왕실 가족이 각기 다른 궁궐에 거주하는 형식²⁵⁾ 등은 고려의 궁궐 운영 특징이다. 즉 각자의 공간을 개별 궁궐로 따로 조성한 점이다. 이는 조선 초의 궁궐 운영을 이해하는 관점이 될 수 있다.

3. 조선 초의 과도기적 사회상

3-1. 조선 초 궁궐 창건

조선 건국 후 초기의 궁궐 운영을 살펴보면 여러 궁궐을 창건하여 동시에 운영했던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조선의 궁궐 운영과는 대치된다. 흔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왕과 대비와 세자가 하나의 궁궐 안에 거주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는 이와는 달랐다. 건국 후 몇십년도 안돼서

여러 개의 궁궐을 동시에 만드는데, 경복궁을 조성하고도 창덕궁을 또 창건하고 수강궁을 또 만들고 세자궁은 궁궐 바깥에 따로 있었다. 별궁도 여러 군데 존재했다. 조선 건국 후 태종 생존시까지 궁궐 창건 기록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복궁(景福宮)은 태조 4년(1395)에 완공되어 정도전에게 새 궁궐의 이름을 짓도록 분부하는 것이 실록에 나오는 경복궁 기록의 시작이다. 궁궐을 경복궁이라고 하고, 연침(燕寢)을 강녕전(康寧殿)이라 하며, 연침의 남쪽을 사정전(思政殿)이라 하고, 또 그 남쪽을 근정전(勤政殿)이라 하였다.²⁶⁾

창덕궁(昌德宮) 영건은 태종 4년(1404)에 이직, 신극례를 한양의 이궁조성도감(離宮造成都監) 제조(提調)로 삼으며 시작되고,²⁷⁾ 이듬해 10월 이궁의 이름을 창덕궁으로 지으면서 일단락된다.²⁸⁾

조선 초에는 세자궁(世子宮)의 존재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5년(1405)에 세자가 공부에 소홀하자 세자궁 내시 노분의 불기를 때렸다는 기록²⁹⁾으로 세자궁의 존재를 알린다. 이 때의 세자궁은 기존의 궁궐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궐 밖에 있었는데 그 위치를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태종 18년(1418) 세자가 된 충녕대군에게 양위하기 위해 국보(國寶)를 주는데 그 때 세자궁이 연화방(蓮花坊)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왕은 세자에게 국보를 주고, 연화방의 옛 세자궁으로 이어하였다고 나온다.³⁰⁾

이후 상황이 된 이방원은 수강궁(壽康宮)에 머무는데 이는 상왕 궁궐로 쓰기 위함이었다. 이방원은 양위를 앞두고 신궁을 짓기 시작하여 양위한 해인 세종 즉위년(1418)에 신궁을 마무리하고 그 이름을 수강궁이라 하였다. 그 해 11월에 완공된 상왕전(上王殿)인 수강궁으로 이어하면서 상왕 궁궐 체제를 갖추게 된다.³¹⁾

여기까지 보면 태조부터 세종 즉위까지 조선에는 경복궁, 창덕궁, 세자궁, 수강궁 등 많은 궁궐의 창건이 있었다. 이들 기록을 볼 때 여러 궁궐의 창건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영건 주체에 따라 마치 자신의 궁궐을 만들고 있는 듯 보이는 점이다. 1대 태조부터

24) 본 논문에서는 본궐에 대한 다양한 해석까지 모두 다루기 힘들며 이에 대한 의문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한다. 본 논문은 조선 초의 연속선 상에서 볼 때의 고려시대 궁궐 운영 정도로만 살펴, 고려 본궐의 해석 방향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만을 언급해둔다. 고려 본궐의 이용 방식은 궁궐에 대한 인식 체계나 여러 시대상황, 정치 체계의 변화, 제도 정비, 왕실사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량 상 전부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고려의 궁궐 제도는 조선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해석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점을 시사한다. 조선의 궁궐 제도를 살피기 위해 조선의 시대 상황과 정치 체계 및 왕실사를 전부 고찰해야 하듯이 고려시대의 해석 또한 마찬가지다.

25) 김창현은 고려가 황제국이기에 때문에 왕 뿐만 아니라 대비, 왕비, 후궁 등 왕의 가족들도 각기 다른 궁을 소유하였다고 했으며 이를 제후국인 조선과는 다른 점이라 보았다.(김창현, 「고려 개경의 궁궐」,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57호, 1999) 박용운도 개경 내에 대궐 외에도 다수의 별궁의 존재가 있으며 왕궁, 공주, 후비의 궁이 있음을 기술했다.(박용운,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26) 『태조실록(太祖實錄)』 8권, 태조 4년(1395) 10월 7일 정유

27) 『태종실록(太宗實錄)』 8권, 태종 4년(1404) 9월 1일 기해

28) 『태종실록(太宗實錄)』 10권, 태종 5년(1405) 10월 25일 정해

29) 『태종실록(太宗實錄)』 10권, 태종 5년(1405) 10월 21일 계미

30) 『태종실록(太宗實錄)』 36권, 태종 18년(1418) 8월 8일 을유

31) 『세종실록(世宗實錄)』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계축

4대 세종까지 지날 동안 각 왕마다 자신의 궁궐을 따로 가진 점이 눈에 띈다. 조선 초 경복궁을 영건했지만, 2대 정종은 개경으로 옮겨 살았고, 3대 태종은 창덕궁을 다시 지었다. 4대 세종에게 왕위가 갈 때는 상왕이 된 태종이 다시 자신의 궁궐을 만들었다.

초창기 조선 궁궐의 창건 기록을 보면 여러 궁궐의 조성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다. 태종을 기준으로 경복궁은 아버지가 만든 궁궐이고, 창덕궁은 한양재천도 후 자신이 살기 위해 만든 궁궐이고, 수강궁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가 살기 위해 만든 궁궐이다. 마치 아버지의 궁궐과 자식의 궁궐과 다시 왕의 아버지 궁궐을 따로 인식하여 만든 듯 보인다. 이는 궁궐이 현재의 주택처럼 각 세대주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쓰임새다.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조선의 궁궐과는 다른 쓰임이라 할 수 있다. 초창기 궁궐은 법궁이나 이궁의 개념보다는 세대별 분리라는 개념으로 운영했을 수 있다. 세대별 궁궐 운영이라는 점에서 이궁이 창건되었고, 상왕 궁궐이 조성된 것이다. 적어도 태종까지는 조선 궁궐의 인식이 과도기 지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궁궐 운영과는 다른 이런 초창기 궁궐의 모습은 고려의 궁궐 운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은 고려에서 태어나서 관직을 지냈던 고려 사람이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다고 해도 새로운 예법이 금방 만들어질 수 없듯이, 고려의 제도가 어느 정도 이어져 오는 과도기의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 초에 보이는 궁궐 창건들이 그것이라 본다. 조선 전기에 보이는 여러 궁궐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선 그 전 시기인 고려의 궁궐 제도를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3-2. 태종에게서 볼 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

조선 초는 고려와 뗄 수 없는 연장선에 있다.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었다 해서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갑자기 변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정치 체제 변화보다 서서히 변화하는 점을 인지한다면 조선 초기 세종 이전에 나타난 과도기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

태조에서 태종까지는 고려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진 사고 방식을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창덕궁 창건의 이유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의 국왕은 앞의 장에서 확인

했듯 자신의 궁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거했다. 창덕궁을 만든 이유도 그런 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볼 때 이방원은 아버지의 궁궐인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창덕궁을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국왕의 궁궐 운영 특성을 반영한 점이 창덕궁 창건으로 이어진다. 물론 여러 정치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이방원에게 익숙한 방식이었던 고려라는 환경에서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고려 왕조에서 이어졌던 세대별 분리의 방법이 조선 초까지는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왕의 궁궐이 따로 있고 각자 주인을 가지는 궁궐을 운영하는 점이다. 이는 창덕궁 창건, 궁궐 밖 세자궁의 존재, 수강궁의 창건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창덕궁 창건 이유가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경복궁으로 가길 꺼려했다’ 등의 구언 등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덕궁을 창건하고자 하는 당시의 태종의 생각이나 태종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덕궁이 아버지의 궁궐인 경복궁과 구별을 위한 궁궐이라 본다면, 수강궁은 아들의 궁궐과 구별을 위한 궁궐로 볼 수 있다. 수강궁은 상왕 궁궐이다. 상왕 궁궐의 영건은 동조의 개념이나, 현재와 과거의 구분, 나 자신의 공간 구성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별 궁궐의 창건은 조선 초의 특징이며 이런 운영 방식은 세종 초까지 이어진다.

태종보다 후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실록에 성종조의 창경궁 창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신궁(新宮)은 바로 태종(太宗)의 이궁(離宮)이다”는 기록이다.³²⁾ 창경궁이 수강궁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을 두고 언급한 것인데, 이 때 수강궁을 ‘태종의 이궁이다’라고 표현하는 점이 눈에 띈다. 당대의 수강궁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인식보다 그 비중이 컸음을 암시한다. 또한 ‘태종의 이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왕별 궁궐을 따로 가지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궁’이란 것이 한 왕조의 이궁이 아니라 국왕 개인의 이궁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적어도 태종까지는 궁궐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어도 기존의 습성이 남아 있는 점들은 조선 초까지 궁궐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32) 『성종실록(成宗實錄)』 153권, 성종 14년(1483) 4월 17일 기묘

다. 그런 점은 조선 초기 세종 이전까지 궁궐 운영에서 세대별로 각자 자신의 궁궐에 기거하는 형식으로 이어온다.

4. 아들 궁궐의 합치와 부모 궁궐의 분리

4-1. 세자 의례 정비와 세자궁 합치

조선 초 창건 경복궁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다음의 도면이 있다.³³⁾ 창건 경복궁은 정전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편진인 보평청은 침전과 같은 영역에 위치한다.³⁴⁾ 왕이 머무는 공간은 연침과 동소침, 서소침 정도인데, 이는 상당히 작은 면적이라 볼 수 있다. 왕의 침전 정도만 만들었고 그 외의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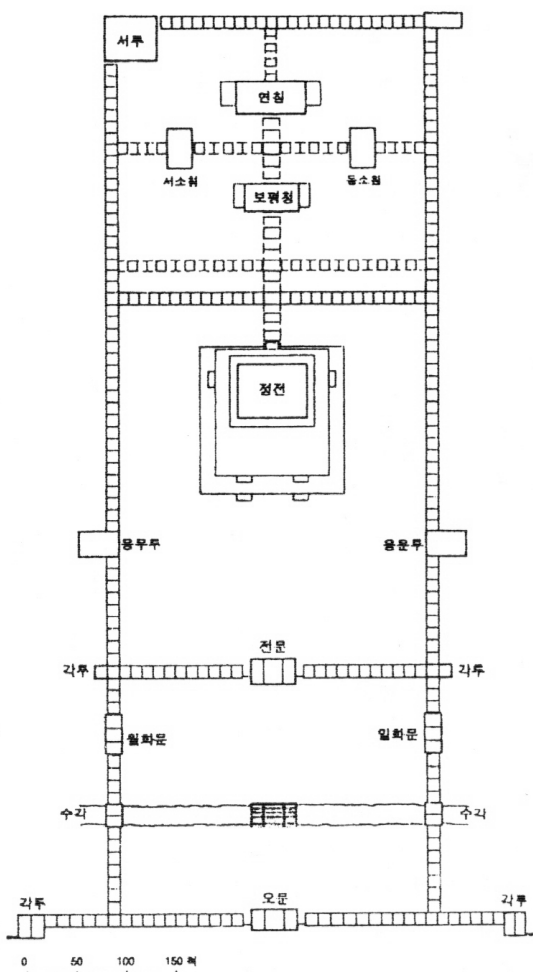


그림 1. 창건 경복궁 복원안(김동욱, 1998)

33)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 구성: 고려 궁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 제7권 제2호, 1998

34) 김지현은 이 부분에서 조선 초의 편진을 ‘편한 전각’으로 해석한다. 이는 궁궐 별전의 초기 모습이다.(김지현, 「조선시대 궁궐 별전의 영건과 변천과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창건 당시를 보면 침전 부분이 빈약한데 이 자체가 상징하는 점이 크다. 고려 본궐 쓰임새의 영향일 수도 있다. 고려 본궐은 점차 침전의 비중이 떨어지는데 이런 점이 조선 초 창건 경복궁 배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본궐이 거주 기능의 기능이 약화되고 공적인 기능 위주로 형성되었음을 본다면, 그 당시에는 왕이 생활하는 공간을 그리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심 궁궐은 국가의 상징성이 더 부각되고 거주 문제는 부차적으로 인식된 점이다.

경복궁은 공적인 영역 위주로 공간이 형성되었고 왕위계승자의 공간도 따로 두지 않았다. 세자의 영역은 창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자는 궁궐 바깥에 다른 궁궐에 머물렀으며 세자가 왕의 궁궐 내에 들어온 것은 세종조 동궁에 관한 의례를 정비하면서부터다. 즉 왕위계승자의 공간은 세종조 의례 정비를 계기로 궁궐 내에 만들어진다. 왜 처음부터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은 당대의 왕조 운영과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³⁵⁾

세종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여러 의례와 궁궐 공사 중에 동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에는 궁궐 내에 동궁 영역이 따로 없었으며, 궁 밖 연화방에 동궁의 처소가 위치하였다. 이후 세종조에 동궁 관련한 의례 제정과 전각 영건이 진행된다. 왕세자 관련한 의례가 정비되면서 이 과정에 건축 공간과 의식 절차를 일치시켰다.³⁶⁾

세종은 의례를 정비하면서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선을 설정하였다. 주요 전각의 의례를 제정한 다음, 동궁에 대한 의례를 정하고 이어 동궁 영역을 조성하였다. 동궁에 관한 의례는 세종 3년(1421) 세자 교육에 관한 전지³⁷⁾가 있으면서 꾸준히 잡히기 시작한다. 전지가 있는 지 4일 후에 동궁 관련한 직제가 개편된다.³⁸⁾

35) 이 부분은 고려 궁궐 운영의 연속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의 궁궐 운영 또한 그랬기 때문에 조선 초의 궁궐 영건에서 그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왕의 궁궐과 세자의 궁궐이 따로 있고 왕의 궁궐도 중심 궁궐이 거주처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창건 경복궁에서도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는 고려시대 궁궐 운영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부분이다.

36) 조재모는 이 부분을 컴퓨터에 비유하며 ‘컴퓨터로 치자면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잘 맞추어 설계한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소프트웨어를 갖추기 위해 그에 맞는 하드웨어를 만든 것이다. 궁궐 운영의 필요부본인 의례를 정비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구현한 것이다.(조재모, 『궁궐, 조선을 말하다』, 아트북스, 2012)

37) 『세종실록(世宗實錄)』 13권, 세종 3년(1421) 10월 22일 신해

38) 동궁에 속하는 부서로 경순부를 만들고 경순부 부윤을 성억(成抑)으로 삼았으며, 세자 좌보덕과 우보덕에 집현전의 학자들을 앉혔다.(『세종실록(世宗實錄)』 13권, 세종 3년(1421) 10월 26일 을묘(2번

같은 날 왕세자 관련 의례를 시행하는데, 먼저 세자 책봉을 종묘(宗廟)와 광효전(廣孝殿)에 고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후 예조(禮曹)에서 왕세자를 책봉하는 의식 등을 아뢰는데, 세자 책봉 장소는 근정전(勤政殿)과 보평전(報平殿)이다. 이어 왕세자가 왕비를 뵈는 의식, 세자 책봉 후 백관들이 하례를 드릴 때의 의식, 왕세자가 종묘와 광효전에 알현하는 의식 방법 등을 차례로 제정한다.³⁹⁾ 이 중 종묘에 알현하는 의식에 관한 실록 기사의 내용은, 왕세자가 동궁에서 나와 종묘까지 오가며 행하는 일련의 의식과 그에 따른 동선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온 ‘동궁’은 당시 경복궁 밖에 있었으며, 궁궐 내의 동궁 영역은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 다음 날인 10월 27일 원자 이향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교지를 내린다. 전 날 왕세자 관련 의식을 제정할 때, 경복궁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기준에 두고 정하였으나, 왕은 당시 창덕궁에 임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덕궁 법전인 인정전에서 세자 책봉의 책문을 내린다.⁴⁰⁾ 세종조의 의례 제정에서 특이점은, 왕이 당시 임어하는 궁궐과 관련 없이 모든 의식의 제정은 법궁인 경복궁을 기준에 둔 점이다.

세종 9년(1427) 4월에는 왕세자의 혼례(婚禮)가 있었다. 관련 실록 기사를 보면, 기사의 마지막에 ‘빈을 맞아 본궁에 갔다가 사흘 뒤에 동궁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다.⁴¹⁾ 세자의 혼례 때까지도 경복궁 내에 동궁 영역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동궁 영역은 세자 혼례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다. 같은 해 8월에 왕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는 대궐 안에 새로 동궁을 짓기 때문이다.⁴²⁾ 이것은 의례의 제정과 더불어 전각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종조에는 의례 제정과 더불어 전각을 수리하거나 새로 영건하는 행위들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세종 25

째 기사: 인녕부를 경순부로 만들어 동궁에 속하게 하고 성역을 부윤으로 삼다))

39) 『세종실록(世宗實錄)』 13권, 세종 3년(1421) 10월 26일 을묘(4번째 기사: 세자 책봉을 종묘와 광효전에 고하다;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를 책봉하는 의식 등을 아뢰다; 6번째 기사: 왕세자의 조왕비의; 8번째 기사: 세자 책봉 후에 백관들이 드릴 하례 의식 방법; 9번째 기사: 왕세자가 종묘에 알현하는 의식 방법; 10번째 기사: 왕세자가 광효전에 알현하는 의식은 종묘에서 하는 것과 같다.)

40) 『세종실록(世宗實錄)』 13권, 세종 3년(1421) 10월 27일 병진(인정전에서 원자 이향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책문을 내리다.)

41) 『세종실록(世宗實錄)』 36권, 세종 9년(1427) 4월 26일 갑신

42) 『세종실록(世宗實錄)』 37권, 세종 9년(1427) 8월 3일 무오(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37권, 세종 9년(1427) 8월 10일 을축(동궁을 짓기 시작하다.)

년(1443)에 세워진 계조당(繼照堂)은 세자의 대리청정을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⁴³⁾ 왕세자가 정치할 공간 마련을 위해 영건되었으며, 계조당 영건과 더불어 왕세자의 조참(朝參)⁴⁴⁾, 인견(引見), 양로연(養老宴) 등 예법의 항목이 함께 정비되었다. 이어 실록의 기사를 보면 대리청정 당시 세자의 공간으로 승화당(承華堂)이 자주 언급된다. 승화당은 세자의 대리청정 전부터 등장하는데, 이후 세자가 정사를 행하는 곳이 된다. 대리청정 시 세자는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고 승화당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⁴⁵⁾ 경복궁 동궁 영역의 공간 설정을 볼 때, 동궁에서 법전의 역할을 한 전각은 계조당이고, 승화당은 편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의례 규정을 만들면서 왕의 궁궐 내에 세자의 공간이 정립되어 갔다. 궁궐 안의 동궁 영역은 궁궐 속의 작은 궁궐 같은 모습으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왕위계승자의 공간은 왕의 궁궐 내에 들어오는 첫 영역이 되었다.

4-2. 상왕 궁궐과 별전

세종조에 정립된 의례를 보면 부모의 공간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앞 절에서 언급했던 왕세자 관련 의식을 보아도 그렇게 많은 의식들을 제정하는 동안 당시의 상왕과 대비에 관련한 의식의 제정이 없었던 점에서 의문이 있다.

세종 당시 제정된 왕세자 관련 의례를 보면, ‘왕세자 조태상전의(朝太上殿儀)’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왕세자 책봉 후 상왕전을 찾아뵈는 의식이다. 내용을 보면, 왕세자의 악차를 수강궁 문 밖에 서향하고 배설하며, 당일 날 왕세자는 전정(殿庭)에 들어가 북향하여 사배하기를 마치고 나온다고 되어 있다.⁴⁷⁾ 의식은 수강궁을 기준

43) 『세종실록(世宗實錄)』 100권, 세종 25년(1443) 5월 12일 병인

44) 세자가 조참을 받는 의례에 관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자의 의례 시 세자는 전각에서 동쪽에 앉아 서향(西向)하여 자리하며, 백관들은 서쪽에서 각각 북향과 남향하여 자리한다. 궁궐 내 주요 전각에서 북쪽에 앉아서 남향(南向)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 최고통치자 밖에 없다. 세자의 의례는 그 다음 위계인 동쪽에 앉아 서향하는 의례에 준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백관의 위계는 세자의 서쪽에서 각각 북향, 남향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계조당에서의 세자 의례 제정은, 동궁 내의 전각 중 가장 상위의 위계를 가진 전각이 계조당을 뜻한다.(『세종실록(世宗實錄)』 100권, 세종 25년(1443) 6월 3일 병술)

45) 『세종실록(世宗實錄)』 118권, 세종 29년(1447) 12월 5일 계해; 『세종실록(世宗實錄)』 119권, 세종 30년(1448) 3월 26일 신해; 『세종실록(世宗實錄)』 121권, 세종 30년(1448) 9월 21일 갑진

46) 김지현, 「조선시대 궁궐 별전의 영건과 변천과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7) 조태상전의(朝太上殿儀)에 이르기를, “왕세자의 악차(輦次)를 수

으로 동선을 잡았으며 동선의 중심은 왕세자이다. 내용에 상왕이나 대비의 동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상왕전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이다. 이 때의 상왕전은 수강궁 전체이다. 상왕 궁궐을 말한다. 상왕이나 대비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왕 궁궐을 대상으로 의식의 흐름을 제정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이점은 ‘조태상전의’ 바로 전에 언급된 의식이 ‘조왕비의(朝王妃儀)’라는 점이다. 왕비는 따로 의식을 제정하였는데 상왕이나 대비는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한다. 또한 상왕이나 대비에게 인사드릴 때는 경복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왕 궁궐로 왕세자가 직접 찾아가서 올리는 점도 특징이다. 상왕이나 대비에 관한 의례에서는 경복궁이 중요하지 않게 설정되었다. 왕세자 의식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이에서 볼 수 있는 점은 경복궁은 왕과 왕위계승자의 공간이지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의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인식이 왕과 왕의 아들, 왕의 부모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식의 제정에서 부모를 한 공간에 같이 모셔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세종 즉위 후 상왕 궁궐에 관한 의식을 제정할 때도 왕이 상왕 궁궐인 수강궁에 가서 조회하는 의식의 절차만 제정되었을 뿐이다.⁴⁸⁾

왕의 공간과 왕의 아들 공간이 합치되는 동안에도 왕의 부모 공간은 따로 설정되었던 점은 별전의 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왕의 부모, 즉 상왕이나 대비는 왕의 곁에 머무러 있을 때 별전에서 기거하였다. 궁궐 내에 부모를 위한 공간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태종 8년(1408) 2월 태상왕인 태조 이성계가 병이 들자 세자궁으로 피병한다. 당시 세자궁은 창덕궁 바로 옆에 있었으며 태상왕이 세자궁으로 이어하자 궁궐 담을 헐어 세자궁과 통하는 문을 내었다. 태상왕의 피병으로 세자는 이안대군의 집으로 옮긴다.⁴⁹⁾ 그 해 5월에 태상왕이 승하하는데 그 장소가 별전이다. 태상왕이 위독할 때

임금이 광연루 아래에 머무르면서 태상왕을 살폈다고 나온다.⁵⁰⁾ 태상왕의 병이 심해지니 임금도 침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보다 낮은 전각에서 머물렀으며, 태상왕 또한 임금 곁에 있었으나 그의 공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별전에서 승하한다.

세종 2년(1420)에는 대비인 태종비 원경왕후가 승하하는데 기록을 보면 당시 대비는 창덕궁 별전에서 머물렀다. 7월 4일에 “상왕이 풍양으로부터 광연루(廣延樓)에 이어하고, 임금으로 하여금 대비를 모시고 창덕궁의 별전에 들어가 거하게 하였다.”⁵¹⁾고 한다. 이로부터 몇세 후인 7월 10일 기사에는 “낮 오시에 대비가 별전에서 흥(薨)하니, 춘추가 56세이요, 중궁(中宮)에 정위(正位)한 지 21년이다.”⁵²⁾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두 달 후 실록에 “...왕대비가 수강궁에서 흥(薨)하시었으므로, 별전(別殿)에 빈(殯)하였다가 석 달을 지나 17일 임오에 헌릉에 장사지내니,...”⁵³⁾라는 구절이 나오는 점이 의문이다. 이는 아마도 수강궁 별전에 빈전을 마련한 것을 두고 수강궁에서 흥하였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대비가 위독한 와중에 창덕궁에서 수강궁으로 옮겨서 돌아가셨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직후 재궁을 수강궁 별전으로 옮겨서 빈전으로 삼은 것을 그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수강궁에서 흥하였다는 표현은 평상시 수강궁에서 머물렀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대비는 조선 초의 상왕 궁궐과 관련이 있었다.

4-3. 대비 궁궐로 창건된 창경궁

상왕이 없을 때도 대비를 모시는 문제는 조선 후기의 시각과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창경궁(昌慶宮)의 창건이다. 창경궁 공사는 성종 14년(1483) 3월 김종직(金宗直)이 상량문을 지어올리고,⁵⁴⁾ 이듬해 성종 15년(1484) 2월에 서거정이 새 궁궐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지어 올리면서⁵⁵⁾ 일단락된다. 같은 해 3월에는 『창경궁기(昌慶宮記)』를 편찬하였다.⁵⁶⁾

창경궁은 성종조에 3분의 대비의 거처 마련을 위해 지은 궁궐이다. 그런데 그 궁궐이 성종이 즉위하고 십

강궁(壽康宮) 문밖에 서향으로 배설하고, 그 날이 되면, 유사(有司)는 노부(鹵簿)와 장위(仗衛)를 동궁(東宮) 문밖에 설치한다. ... 왕세자가 수강궁 문밖에 이르러 노에서 내려, 여를 타고 약차(輶次)로 들어가 조복을 입는다. 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문 밖에 나가기를 평상시에 비옵는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이 인도하여 전정(殿庭)에 들어가 북향하여 사배하기를 마치고 나와, 처소에 나아가 옷을 벗으면, ... (후략)” (『세종실록(世宗實錄)』 13권 세종 3년(1421) 10월 26일 을묘(7번째 기사: 왕세자 조태상전의))

48) 『세종실록(世宗實錄)』 2권, 세종 즉위년(1418) 12월 20일 을미

49) 『태종실록(太宗實錄)』 15권, 태종 8년(1408) 2월 14일 기사

50) 『태종실록(太宗實錄)』 15권, 태종 8년(1408) 5월 24일 임신

51) 『세종실록(世宗實錄)』 8권, 세종 2년(1420) 7월 4일 경오

52) 『세종실록(世宗實錄)』 8권, 세종 2년(1420) 7월 10일 병자

53) 『세종실록(世宗實錄)』 9권, 세종 2년(1420) 9월 16일 신사

54) 『성종실록(成宗實錄)』 152권, 성종 14년(1483) 3월 3일 을미

55) 『성종실록(成宗實錄)』 163권, 성종 15년(1484) 2월 11일 무진

56) 『성종실록(成宗實錄)』 164권, 성종 15년(1484) 3월 20일 정미

여년이 훨씬 지난 후에 창건된다. 3분의 대비는 이미 성종 즉위 직후부터 있었는데 그들을 위한 궁궐은 15년이나 지난 후에 만들어지는 점에서 창경궁 창건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경궁을 창건하기까지 성종의 정치적 입지나 왕실사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은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의 둘째아들이다. 세조는 맏아들이 일찍 죽자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가 예종으로 즉위한다. 예종이 즉위 1년 후 갑작스레 승하하는데 이 때 왕위 결정에 관해 일이 생긴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원자라 불리고 있었다. 예종 승하 후 왕위 계승 1순위는 당연히 그 원자였다. 2순위는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인 월산군이었고 당시 자을산군⁵⁷⁾으로 불리던 성종은 3순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3순위이던 자을산군이 왕으로 즉위한다. 그의 장인이 한명회였다.

성종 즉위 후 그의 아버지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존되었고, 이에 따라 그의 어머니는 덕종비 소혜왕후로 추존되었다. 이렇게 되자 성종 즉위 직후 왕실에는 3분의 대비가 생긴다. 할머니인 세조비 정희왕후, 어머니인 덕종비 소혜왕후, 작은어머니인 예종계비 안순왕후가 그들이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즉위한 성종을 대신해 세조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실시한다. 조선왕조 최초의 수렴청정이다.⁵⁸⁾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이 친정하게 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진다. 폐비윤씨 사건이다. 첫 번째 왕비인 공혜왕후 승하 후 새로운 중전을 들였으나 문제가 생긴다. 결국 왕비 폐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인수대비(소혜왕후)가 있다.⁵⁹⁾

일련의 사건에서 왕과 대비의 권력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성종 즉위 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대비의 권력이 강해진 것이다. 수렴청정으로 왕의 권력이 일시적으로 대비에게 집중된 경우가 그렇고, 왕비 폐출 사건 중심에 대비가 있는 점 또한 그렇다. 성종을 기준으로 각각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권력이 양분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폐비윤씨 사건이 마무리되고 폐

57) 자을산군(者乙山君), 잘산군(蓀山君), 자산군(者山君)으로 불리었다.

58) 성종은 세자시절 없이 왕이 되었다. 수렴청정 기간은 그의 군왕교육 기간이기도 했다.(김지현, 「조선시대 대비의 위상 변화와 궁궐 내 대비전의 영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3권 제6호, 2017)

59) 『성종실록(成宗實錄)』 105권, 성종 10년(1479) 6월 2일 정해; 『성종실록(成宗實錄)』 105권, 성종 10년(1479) 6월 3일 무자; 『성종실록(成宗實錄)』 144권, 성종 13년(1482) 8월 11일 정미

비의 편에 선 신료를 징계하라는 언문의 글을 대비전에서 내리는 시점이 성종 13년(1482)이다.⁶⁰⁾

이 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경궁 공사가 바로 그 직후인 성종 14년(1483)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폐비윤씨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에 창경궁을 창건한다. 창경궁의 창건이 단지 ‘3분의 대비를 잘 모시기 위한’ 궁궐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서 창경궁 창건을 다른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세대별 궁궐의 특징으로 볼 때 창경궁 창건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태종은 자신의 궁궐을 만들기 위해 창덕궁을 창건했다. 아버지의 궁궐과 자신의 궁궐을 분리한 것이다. 상황이 되면서는 수강궁을 만들었다. 이를 볼 때 창경궁 창건도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모 세대와의 분리인 것이다. 창경궁 창건은 왕이 대비와의 분리를 선언한 것이다.

창경궁 창건은 권력의 분리 및 집중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분산된 권력을 왕에게 집중하고 부모세대와의 분리를 위해 공간 자체도 나눈 것이다. 창경궁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모든 궁궐의 창건이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창경궁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창경궁 창건이야말로 ‘효(孝)’를 이용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이어지는 궁궐 영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당히 많은 수의 궁궐이 영건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먼저 고려시대에는 본궐을 만들긴 하나 본궐의 이용을 차치하고 다른 궁궐을 영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사』를 토대로 국왕별로 행하는 궁궐 공사나 기존의 전각을 궁궐로 삼는 기록 등을 통해 각 국왕 마다 자신의 궁궐을 가지는 점을 확인했다.

고려가 본궐과 함께 다수의 이궁을 두고 그것을 함께 운영하는 점은 조선의 궁궐 기준에서 볼 때는 다른 특색이다. 조선은 법궁과 이궁의 구성이 거의 유사하며, 특정 기능이 부각되지 않았고 각 궁궐마다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어느 궁궐에서 머물든 그 곳에서 의례, 정무, 생활이 모두 가능했다. 그러나 고려의 궁궐은 이와는 상반된다. 본궐이 국가

60) 『성종실록(成宗實錄)』 144권, 성종 13년(1482) 8월 11일 정미

의 상징성이 강하고 이궁은 상대적으로 거주 기능이 강한 점이다. 이런 공간의 분리는 역대 임금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고려의 궁궐 운영의 특색은 왕실 가족이 각각의 궁궐을 가지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조선은 하나의 궁궐에 왕과 왕비, 대비, 세자, 후궁 등 왕실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았다. 하나의 궁궐 안에서 각각의 전각으로 영역을 나누는 정도였다. 그러나 고려는 이와는 다른 방식을 취했다. 각 공간을 분리해서 다른 궁궐을 운영한 점이다. 고려 궁궐 운영의 이러한 기능별, 세대별 분리는 조선의 방식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까지만 해도 궁궐 운영은 그 이후의 상황과는 달랐다. 특히 조선 초에 왕실 가족이 각기 다른 궁궐을 가지는, 소위 세대별 분리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공간 운영은 고려적인 요소이다.

세종 이전까지 궁궐 공사를 살펴보면 조선 초는 고려의 연장선에 있는 과도기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궁궐 운영이 조선 초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고려는 왕 자신의 궁궐을 따로 만들어 생활했는데 이는 조선 초의 궁궐 이용 방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창덕궁은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와의 분리를 위해 만든 궁궐임을 알 수 있다. 그가 고려라는 사회에서 살았던 영향이다. 당시의 궁궐 영건은 국왕의 이궁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이어졌다.

고려의 궁궐 운영 방식이 이어지던 점은 세종조에 이르러서야 정비된다. 왕위계승자를 책봉하는 과정에서 의례를 정비하고 궁궐 운영까지 달리하는 점이다. 이 때부터 세자의 궁궐은 더 이상 왕의 궁궐과 다른 공간에 있지 않고 한 공간에 함께 기거하는 방식이 된다. 왕과 왕위계승자는 하나의 궁궐에 합쳐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왕의 부모 공간은 합쳐지지 않았는데 이는 왕위계승자와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왕위계승은 권력을 잇는 문제이지만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은 효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때 효의 개념은 조선 후기의 그것과는 달랐다.

당시 효의 개념은 권력과 무관했다. 조선 후기는 효가 곧 충(忠)이고 효가 곧 권력이었지만 조선 전기는 그렇지 않았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문제는 권력과 별개였으며 다른 문제였다. 효가 곧 권력이 되는 것은 인조반정 후 대비가 국왕결정권을 갖게 되면서부터다.⁶¹⁾

조선 전기 궁궐 공사들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왕위계승자와 왕위에서 물러난 자의 차이와 그에 따른 권력의 집중과 분리라는 점이며, 이를 궁궐 공사라는 공간의 측면에서도 표출된다는 것이다. 왕위계승 문제가 권력의 집중 문제에서 왕의 곁에 왕위계승자를 두어 그 권력의 우열 관계를 잡으려 했던 것처럼 권력의 집중 문제에서 부모의 궁궐을 분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의 궁궐 이용 방식은 고려의 연장선에 있으며 권력의 집중 과정에서 조선만의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의 방식을 정착하기까지 고려의 궁궐 운영이 끼친 영향 또한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당대의 궁궐 운영 방식을 당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세대별 공간 분리는 조선 전기까지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다.

태종의 창덕궁 창건이나 성종의 창경궁 창건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두 궁궐 모두 부모 세대와의 분리를 선언한 사건이란 관점 또한 유효하다.

조선 전기 궁궐 운영에서 볼 수 있는 고려적 요소는 조선 후기와는 다른 것이다. 부모의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궁궐 운영을 통해 당대의 정치 상황, 왕실사 등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부모의 공간이 차지하는 궁궐 운영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을 시사한다. 효의 개념과 권력의 문제, 그리고 궁궐 운영을 서로 연결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고려사(高麗史)』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3.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 구성: 고려 궁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 제7권 제2호, 1998
4. 김창현, 「고려 개경의 궁궐」,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57호, 1999
5. 김지현, 「조선시대 궁궐 별전의 영건과 변천과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6. 김지현, 「조선시대 대비의 위상 변화와 궁궐 내 대비전의 영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3권 제6호, 2017
7. 박용운,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61) 김지현, 「조선시대 대비의 위상 변화와 궁궐 내 대비전의 영건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3권 제6호, 2017

78 논문

8. 장지연, 「고려후기 개경 궁궐 건설 및 운용방식」, 한국
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60호, 2006
9. 정은정, 「원(元) 수도권정비의 영향과 고려궁궐의 변화
」,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76, 2010
10. 조재모, 『궁궐, 조선을 말하다』, 아트북스, 2012

접수(2020. 04. 11)

수정(1차:2020. 06. 05)

게재확정(2020. 06. 12)